

아동 및 아버지가 지각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ren's and Fathers' Perceptions of the Fathering Practice on Children's Sociality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수료 송요현*

교수 현온강**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In-ha Univ.

Doctoral Course : Song, Yo-Hyun

Professor : Hyun, On-Kang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fathering practice on children's sociality.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569 (grade 6) students who are from 4 elementary schools, and 511 (grade 3) students who are from 4 other middle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two kinds of questionnaires: Canfield's (1995) Fathering Practice Scale and Lim Guy-Sung's (1999) Children's Sociality Scale.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Cronbach's alpha, t-test, one-way ANOVA, Scheffé's post hoc 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children's sociality according to children's and fathers' perceptions of the fathering practices. I classified 1080 students into 4 groups by $\text{mean} \pm 1/2 \text{ standard deviation}$ of the children's and fathers' perceptions of the fathering practices.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sociality tends to be higher when the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fathering practice are at a high level (Group 1 and Group 2), compared to when the fathers' perceptions of the fathering practice are at a high level (Group 3 and Group 4). Second, hierarchical regression was divided into two models so as to know how the effects were different from the children's and fathers' perceptions of the fathering practice on children's sociality. In the first model, only the fathers' variables were inputted and fathers' perceptions on fathering practice has significant effects on children's sociality. In the second model, both the children and fathers' variables were inputted into analysis. The fathers' perceptions of the fathering practice were not influenced, but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fathering practice had great effects on children's sociality. Third, as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with age, mid-childhood has significant effects on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fathering practice on children's sociality. In addition, early adolescence i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effects of the fathers' perceptions of the fathering practice on children's sociality. As a result the fathers' perceptions of the fathering practice are important and influential variables on children's sociality. In the result of this study fathering practice is necessary in children's development.

▲주요어(Key Words) : 아동 및 아버지가 지각한 아버지 역할수행(children's and fathers' perceptions of the fathering practice), 아동의 사회성(children's sociality), 아동중기 및 청소년 초기 아동(mid-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 주저자 : 송요현(E-mail : leoyoyo@daum.net)

** 교신저자 : 현온강(E-mail : okhyun@inha.ac.kr)

I. 서론

아버지는 가족구성에 있어서 주체적인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아동과 가족의 연구에 있어서 아버지의 중요성은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영역이었다(황정해, 2003). 외국의 연구에서도 1970-80년대에 이르러서야 아버지 역할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일어났고, 1990년대에 이르러 그 관심이 더욱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과학적 관심이 증폭되는 과정을 거치며 아버지 연구의 토대를 세우게 되었다(Marsiglio et al., 2000). 이러한 학문적 관심의 시작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역할들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회의 빠른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은 가족의 구성원임에도 아동과 어머니의 역할에 비해 축소되어 평가되었던 기존의 연구들 속에서 아버지 역할수행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흐름으로 변화되어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어머니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가정 내에서도 어머니와는 다르고 독특한 '아버지의 역할은 존재 한다'라는 전제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의 주류는 아버지는 아동의 성역할 모델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었으며(양미경, 1996; 차은영, 1987; Harris & Morgan, 1991; Levy-Shiff & Israelashvili, 1988),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고유한 역할수행이 존재한다는 연구들로 기존에 어머니의 역할만을 강조하여 가정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가정 내 자리 찾기'가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와 비교해서 아동의 양육 및 교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이차적이고 경제적 제공자 또는 최종 결정자라는 도구적 영역에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했던 기존의 생각은(LeMaster, 1974) 사회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어머니와 다른 고유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연구의 틀에서 연구의 방향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질적으로 다른 자녀양육 역할이 있기에 아버지 역할은 어머니가 대신할 수 없고(Dudson, 1975),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아버지는 남아와 여아를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시키기 때문에 또래나 어머니보다 중요한 사회화의 매개자(Langlois & Downs, 1980)라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아버지가 단순히 어머니의 대리역할만 하는 존재가 아님을 지적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는 각기 다른 종류의 자극은 부모 중 한쪽에서만 받는 자극에 비해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에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볼 수 있기에(Lamb et al., 1985; Luster & Okagaki, 1996) 아버지만의 독특한 역할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독특한 역할수행의 영역이 있음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아버지 역할수행 영역을 '자녀

양육 역할, 남편의 역할, 부양자 역할, 양육자의 일관성, 자녀 이해도, 자녀와의 대화, 아버지의 정신적 자세'의 7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도 하고(Canfield, 1995), '역할수행, 자녀훈육에의 참여, 자녀교육에의 참여, 결혼의 질,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토론, 위기 다루기, 자녀에게 애정보이기, 모델링, 재정적인 제공자, 정신적인 자세, 표현의 자유, 자녀를 아는 것'의 1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였다(Eggerichs, 1992).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Canfield(1995)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아버지 역할수행 중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는 변인을 제외하거나 수정하여 아버지의 독특한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희숙, 1996; 조선화 1998).

또한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요청되는 역할이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기(7세 이후-12세)의 아버지 역할과 청소년기(12세 이후-18세)의 아버지 역할은 다르게 요구된다고 한다. Canfield(1995)는 아동기(7세 이후-12세)에 아버지들은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아동기의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녀에게 사회 및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며, 나쁜 영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아이들이 세상 속으로 다가가도록 격려하는 역할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아동기(7세 이후-12세)에 요청되는 아버지 역할은 '이해'라고 하였다. 즉 이 시기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보호자 및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아동에게 중요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아동기의 아버지는 아동이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분화'의 과정을 계속 갖도록 돕고, 친구가 되어주고 온정과 지지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정문자, 1987). 결론적으로 아동기의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는 아동의 학업수행, 사회성 발달 및 지적 발달에 많은 관심을 두면서도 협동심과 능동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더불어 자녀의 성역할 발달의 기본 역할을 수행하고, 친구관계, 자녀를 상대로 친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자녀의 논리와 추론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역할수행의 기술 등 아버지 자신의 발달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정은주, 1990).

청소년기(12세 이후-18세)의 아동은 자아의식을 갖고 자아에 대한 통합된 개념을 발달시키려 한다. 이 시도는 부모가 보호자로서 또 성숙된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인식과 일치됨으로서 일어난다. 아동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독립을 추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행동양식에 적응하며 가치를 명료화시키게 되며 이 시기에 아동은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아버지와 도덕적인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정문자, 1987). Canfield(1995)는 청소년기(12세 이후-18세)의 아버지를 '계몽'의 시기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아버지 만족이 낮아지고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아버지는 삶의 중반기에 접어들게 되는 시기로서 젊음을 잃어가는 반면, 자녀는 아주 활발한 힘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특성에 따라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이르면 가족은 세대 간의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여진경·전영주, 2007). 즉, 청소년기의 아버지들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지나친 관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요구할 때 '충고자'가 되며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공평한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단계에 따른 연구의 중요성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각 단계에 맞는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발달단계에 맞는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해서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서 사회 속에서 여러 형태의 사회적 과정을 거쳐서 사회화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간성을 사회성(sociality)이라 한다(김동환, 1992). 사회성이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학습되는 행동성향이고 사회성에는 가치, 이념, 문제 해결 방법,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태도나 감정을 포함하는 것이며(Ambrose, 1988), 협동적인 요인과 독립적인 요인, 우호적인 요인, 자기 관철적인 요인으로 정의되기도 한다(Baumrind, 1973). 즉, 사회성은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안정을 얻기 위해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말하며, 따라서 사회성이 높다는 것은 타인과 잘 어울리며 협동심이 강하고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송요현, 2006). 이러한 사회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Erikson은 이러한 사회성의 발달을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인간발달의 특성을 밝혔다. 그의 발달 단계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연령의 시기를 살펴보면, '근면성 대 열등감(Industry versus Inferiority)'의 4단계와 '정체감 대 역할혼미(Identity versus Identity confusion)'의 5단계이다. 4단계의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는 만 6~12세로 자아성장의 결정적 시기이며, 이 시기의 아동은 기초적인 인지 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몰두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적절한 조절이 요구되고, 부모의 바른 격려와 칭찬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또한 5단계인 '정체감 대 역할혼미'의 시기는 12세 이후 사춘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압력이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이다.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의문과 탐색이 시작되면서 고민과 갈등, 방황을 갖게 되는 시기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의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요청된다.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는, 성격과 정서 상태에 따라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과 양육 상태를 결정하게 되고, 요구경향과 가정의 분위기가 좌우하게 되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소혜, 1995; Huntsinger, et al., 1998). 아동의 사회성은 가정에서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결과(이동희, 1994; Cohn, 1990),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사회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핵가족화와 어머니의 취업증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확산과 주 5일제 근무의 정착 등의 사회의 변화는 아버지 역할의 강화와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불러일으켰다(김경희, 2000; 김혜선, 2005; 박미자, 2001; 성귀자, 1999; 윤서영·정옥분, 1999; 이희영·최태진, 2007; 장은미, 1999; 조성자·손은주, 1998; 한영숙, 2006; 함인희, 1997; Cabrera, et al., 2000). 또한 실제로 아버지 역할수행은 아동의 사회성을 예견한다는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다(김성일, 2006; 최경순, 1992).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로서 어머니와는 다른 존재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과 관점으로 연구되지 못했다. 연구의 대부분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실제 아버지 역할수행을 바라보는 연구들의 연결고리들이 따로 분리되어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아버지 역할수행'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이 연구의 편의성과 관점의 차이로 연구대상의 편중이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아버지 역할수행이라는 것이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망 속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아버지와 아동을 함께 살펴본 연구들은 별로 없고, 가족의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진 연구도 드물다(한선아,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아버지와 아동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각 대상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아동이 인식하는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버지가 인식하는 역할수행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왔던 과거의 연구결과에서 밝히지 못했던 아버지와 아동의 인식차이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김성일, 2006). 이를 통해 아버지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역할수행을 평가하고, 아동은 아동의 입장에서 아버지 역할수행

을 평가하여 그 차이가 아동의 사회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은 발달단계별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식하는 시각과 경향이 다를 수 있다. 아동중기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만, 청소년 초기에는 논리적인 사고의 발달과 더불어 자신을 평가하는 시각이 좀 더 객관화될 수 있다. 즉, 아동중기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기가 수용하는 경향에 따라서 자신의 평가가 긍정적이 될 수 있으나, 청소년기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한 자기평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버지 역할수행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아동의 사회성 인식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아버지는 일상적인 양육에 깊이 참여하는 효과적인 양육자가 될 능력이 있고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및 역할수행은 자녀의 인지적·사회적·정서적 발달 측면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아버지 역할수행의 어떤 요인들이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역할수행이 기존의 연구 방법과는 달리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과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실제 행해지는 아버지 역할수행과 아동이 생각하는 아버지 역할수행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아동의 발달단계를 아동중기(초등학교 6학년)와 청소년 초기(중학교 3학년)로 나누어 각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과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해 아동과 아버지는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춘 아버지 역할수행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고저(高低)집단과 아동의 사회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인지역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아동 549명과 4개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아동 511명으로 총 1080명의 아동과 그들의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는 8개교 26개 학급에서 유의표집을 통해서 작성되었으며 총 1593부를 배부하여, 총 1347부를 수거하였으나 응답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1147부를 데이터 입력 후, 그 중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67부를 제외한 총 1,080부를 실제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연령 선정은 Erikson(1959)의 발달단계와 Canfield(1995)의 생의 단계에 근거하여 아버지 역할수행과 사회성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아동중기)과 중학교 3학년(청소년 초기)의 아동이라 판단되어, 아동중기 및 청소년 초기 아동을 연구대상 연령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여아가 559명(51.8%), 남아가 521명(48.2%)이었으며, 아동의 연령은 아동중기(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이 569명(52.7%), 청소년 초기(중학교 3학년)의 아동이 511명(47.3%)으로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서 모두 비슷한 비율이었다. 연구대상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3.4세이며, '40~44세'가 52.1%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53.0%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생산기능직에 23.2%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직, 사무직, 행정관리직, 서비스직 순이었다. 또한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201~300만원'의 가정이 3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1~200만원'의 가정이 30.6%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아버지 역할수행

본 연구는 아버지 역할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Canfield(1995)의 아버지 역할수행 척도(Fathering Practice Scale: FPS)를 번안하여 사용한 윤서영(1998)의 '아버지 역할수행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버지 역할수행에 관한 문항은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와의 대화', '자녀양육의 일관성', '자녀에 대한 책임',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자녀부양', '자녀 이해', '자녀사랑', '자녀교육'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080

변 인	구 분	빈도(명)	Percent(%)
아동 성별	여 자	559	51.8
	남 자	521	48.2
아동 연령	아동 중기(초등학교 6학년)	569	52.7
	청소년 초기(중학교 3학년)	511	47.3
아버지 연령	35~39세	106	9.8
	40~44세	563	52.1
	45세 이상	410	38.0
	무응답	1	0.1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572	53.0
	대학교 졸업 이하	434	40.2
	대학원 졸업 이상	64	5.9
	무응답	10	0.9
아버지의 직업	무직 또는 기타	96	8.9
	생산 기능직	251	23.2
	서비스직	123	11.4
	판매직	198	18.3
	사무직	160	14.8
	행정관리직	140	13.0
	전문기술직	99	9.2
	무응답	13	1.2
월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	43	4.0
	101~200만원	330	30.6
	201~300만원	415	38.4
	301만원 이상	281	26.0
	무응답	11	1.0

그렇다'의 5점으로 평가하며, 점수범위는 48점-240점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α 를 살펴본 결과, '전체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은 .96, '전체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은 .93이었다.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녀와의 대화'는 아동과 아버지 각각 .85, .87이고, '자녀양육의 일관성'은 아동과 아버지 각각 .62, .45, '자녀에 대한 책임'은 아동과 아버지 각각 .79, .80, '자녀를 위한 부부 협력'은 아동이 .69, 아버지가 .75로 나타났으며, '자녀부양'에서는 아동이 .87, 아버지는 .84, '자녀이해'는 아동과 아버지 각각 .89, .88, '자녀사랑'과 '자녀교육'은 아동과 아버지 동일하게 .87, .86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사회성

아동의 사회성은 김동환(1992), 김숙경(1989)의 연구를 참고로 한 임귀성(1999)의 아동의 사회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뢰성', '지도성', '근면성', '안정성', '사교성', '준법성' 등의 6개의 하위 요인을 포함하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범위는 30~150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아

동의 사회성 척도의 총합을 산출하여 그 총합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의 분석

본 연구는 예비조사를 거쳐 아동이 응답하기 어려웠던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를 시행하였다. 질문지 배부는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는 각반의 담임선생님께, 중학교는 일부 협조를 허락한 교과목 선생님께 실시 방법을 설명한 부탁의 글을 전달하며 간략하게 실시 방법을 구두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아버지 질문지는 각 아동이 가정으로 가지고 돌아가서 아버지께 응답을 부탁하고, 일주일 후 각반의 담임선생님과 교과목 선생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구하고, 이후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고저(高低)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통해 집단을 나누고, 그 집단에 따른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

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 고저(高低) 집단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아동과 아버지 인식의 집단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ean±1/2sd를 기준으로 '아동 고(高)-아버지 고(高): Group 1', '아동 고(高)-아버지 저(低): Group 2', '아동 저(低)-아버지 고(高): Group 3', '아동 저(低)-아버지 저(低): Group 4'의 4집단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고저(高低)집단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4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아동의 사회성은 '아동 고(高)-아버지 고(高): Group 1', '아동 고(高)-아버지 저(低): Group 2'와 '아동 저(低)-아버지 고(高): Group 3', '아동 저(低)-아버지 저(低): Group 4'의 4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

다. 즉, '아동 고(高)' 집단(Group 1, Group 2)과 '아버지 고(高)' 집단(Group 3, Group 4)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제 1모형'에서는 독립변수에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요소만을 넣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2모형'에서는 독립변수에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과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을 함께 투입하여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이 회귀분석의 가정을 위배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Durbin-Watson검정과 공차한계(Tolerance), VIF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회귀모형에 있는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D-W검정 계수를 살펴본 결과, 그 계수가 1.873부터 2.065로 자기상관이 없는 계수 값 2에 가깝게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가 작거나(공차한계<0.1) VIF계수가 크면

<표 2>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 고저(高低)집단의 차이

집 단		아동의 사회성		
		N	평균	scheffé
Group 1	아동 고(高) - 아버지 고(高)	143	3.96	a
Group 2	아동 고(高) - 아버지 저(低)	29	3.89	a
Group 3	아동 저(低) - 아버지 고(高)	29	3.43	b
Group 4	아동 저(低) - 아버지 저(低)	142	3.42	b
F		40.140***		

***p<.001

<표 3>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모형	변수	아버지가 인식한	아동이 인식한	회귀상수	R ²	ΔR ²	F값	D-W계수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		(Adj R ²)	(ΔAdj R ²)		
제1모형	B	.296		2.587	.135 (.132)		53.149***	1.970
	β	.367***						
	공차한계	1.000						
	VIF	1.000						
제2모형	B	-.021	.366	2.433	.300 (.296)		72.850***	1.997
	β	-.026	.566***					
	공차한계	.516	.516					
	VIF	1.938	1.938					

***p<.001

(VIF>10) 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모든 모형에서 유난히 작은 공차한계나 월등하게 큰 VIF가 보이지 않으므로 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제 1모형'에 '아버지가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을 투입한 결과, '아동의 사회성'에 13.5%의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beta = .367, p < .001$). '제 2모형'에서는 '아버지가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과 '아동이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을 함께 투입한 결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아동이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만 유의한 영향력으로 나타났다($\beta = .566, p < .001$), 설명력은 30.0%로 16.5% 증가하였다.

2)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하위요인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각 하위요인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제 1모형'에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각 하위요인인 '자녀와의 대화', '자녀양육의 일관성', '자녀에 대한 책임',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자녀부양', '자녀이해', '자녀사랑', '자녀교육'의 8가지 하위요인을 투입하였다. 이후 '제 2모형'에서는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8가지 하위요인과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8가지 하위요인을 함께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녀양육의 일관성'요인을 제외한 각 하위요인에서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을 함께 투입한 '제 2모형'에서 상대적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하위요인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	회귀상수	R ² (Adj R ²)	ΔR^2 (Δ Adj R ²)	F값	D-W계수
자녀와의 대화								
제1모형	B	.202						
	β	.323***			.104		39.737***	1.961
	공차한계	1.000		2.885	(.102)			
	VIF	1.000						
제2모형	B	.078	.159					
	β	.125	.310***		.161	.057	32.647***	1.961
	공차한계	.591	.591	2.753	(.156)	(.054)		
	VIF	1.692	1.692					
자녀양육의 일관성								
제1모형	B	.027						
	β	.059			.004		1.207	1.924
	공차한계	1.000		3.587	(.001)			
	VIF	1.000						
제2모형	B	-.008	.241					
	β	-.018	.343***		.115	.111	22.086***	1.873
	공차한계	.949	.949	2.875	(.110)	(.109)		
	VIF	1.053	1.053					
자녀에 대한 책임								
제1모형	B	.222						
	β	.342***			.117		45.045***	2.018
	공차한계	1.000		2.833	(.114)			
	VIF	1.000						
제2모형	B	.101	.206					
	β	.155***	.334***		.193	.076	40.764***	2.009
	공차한계	.687	1.455	2.494	(.189)	(.075)		
	VIF	.687	1.455					

<표 4> 계속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	회귀상수	R ² (Adj R ²)	△R ² (△Adj R ²)	F값	D-W계수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제1모형	B	.145		3.158	.066 (.063)		24.185***	1.957
	β	.257***						
	공차한계	1.000						
	VIF	1.000						
제2모형	B	.005	.276	2.695	.219 (.215)	.153 (.152)	47.772***	2.006
	β	.008	.464***					
	공차한계	.711	.711					
	VIF	1.406	1.406					
자녀부양								
제1모형	B	.231		2.815	.106 (.103)		40.402***	1.977
	β	.325***						
	공차한계	1.000						
	VIF	1.000						
제2모형	B	.046	.263	2.501	.253 (.249)	.147 (.146)	57.721***	2.065
	β	.065	.464***					
	공차한계	.684	.684					
	VIF	1.461	1.461					
자녀이해								
제1모형	B	.228		2.848	.104 (.102)		39.666***	1.961
	β	.323***						
	공차한계	1.000						
	VIF	1.000						
제2모형	B	.056	.225	2.669	.246 (.242)	.142 (.140)	55.493***	2.006
	β	.079	.449***					
	공차한계	.705	.705					
	VIF	1.418	1.418					
자녀사랑								
제1모형	B	.186		2.983	.097 (.094)		36.432***	1.977
	β	.311***						
	공차한계	1.000						
	VIF	1.000						
제2모형	B	.012	.208	2.929	.214 (.209)	.117 (.115)	46.195***	2.014
	β	.020	.449***					
	공차한계	.580	.580					
	VIF	1.724	1.724					
자녀교육								
제1모형	B	.213		2.946	.111 (.108)		42.579***	1.981
	β	.333***						
	공차한계	1.000						
	VIF	1.000						
제2모형	B	.028	.269	2.667	.300 (.296)	.189 (.188)	72.985***	1.972
	β	.045	.522***					
	공차한계	.694	.694					
	VIF	1.440	1.440					

*** p<.001

연구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경향을 보였다. 첫째, '제 1모형'에서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가, '제 2모형'에서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과 함께 투입하였을 때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력만이 남는 경우이다. 그 각 하위요인들은 '자녀와의 대화',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자녀부양', '자녀이해', '자녀사랑', '자녀교육'으로 총 6개였으며 영향력의 변화량은 5.7~18.9%로 나타났다. 둘째, '제 1모형'에서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제 2모형'에서도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고,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함께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낸 경우로 '자녀에 대한 책임'의 하위요인의 경우였다. '자녀에 대한 책임'의 하위 요인의 영향력의 변화량은 7.6%였다. 셋째, '제 1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제 2모형'에서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경우만 '아동의 사회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 경우로, '자녀양육의 일관성' 하위요인의 경우였다. '자녀양육의 일관성'요인의 경우 영향력의 변화량은 11.1%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가지 경향을 통해서 '아버지 역할수행'은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

는 것은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보다 '아동의 사회성'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3.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중기(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과 청소년 초기(중학교 3학년)의 아동을 나누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은 앞의 연구문제의 패턴과 동일하게, '제 1모형'에서는 독립변수에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요소만을 넣고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제 2모형'에서 독립변수에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과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을 함께 투입하여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2에서 제시했던바와 동일하게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D-W계수를 살펴본 결과 1.837부터 2.100으로 독립변수들 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공차한계와 VIF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유난히 작은 공차한계나 월등히 큰 VIF는 나타나지 않았으

<표 5>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버지가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	아동이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	회귀상 수	R ² (Adj R ²)	△R ² (△Adj R ²)	F값	D-W계수
아동중기(초등학교 6학년)								
제1모형	B	.302						
	β	.313 ***		2.590	.098 (.092)		17.182***	1.848
	공차한계	1.000						
	VIF	1.000						
제2모형	B	-.070	.464					
	β	-.073	.647 ***	2.252	.367 (.359)	.269 (.267)	45.567***	2.053
	공차한계	.644	.644					
	VIF	1.553	1.553					
청소년 초기(중학교 3학년)								
제1모형	B	.281						
	β	.389 ***		2.616	.152 (.147)		31.633***	2.068
	공차한계	1.000						
	VIF	1.000						
제2모형	B	.079	.336					
	β	.110	.377 ***	2.508	.216 (.207)	.064 (.060)	24.204***	2.009
	공차한계	.450	.450					
	VIF	2.221	2.221					

***p<.001

므로 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동중기(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경우, '제 1모형'에 '아버지가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을 투입한 결과, '아동의 사회성'에 9.8%의 설명력을 가졌다($\beta = .313, p < .001$). '제 2모형'에서는 '아버지가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과 '아동이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을 함께 투입한 결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아동이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만 36.7%의 설명력이 있었으며($\beta = .647, p < .001$), '제 1모형'에 비해 26.9% 증가한 설명력이었다. 청소년 초기(중학교 3학년)의 아동의 경우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 1모형'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15.2%

로 아동중기의 아동보다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제 2모형'에서도 아동중기의 아동과 같은 패턴으로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력이 소멸되고,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력만 21.6%로 나타났다($\beta = 3.77, p < .001$).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청소년 초기(중학교 3학년)의 아동의 경우,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중기(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의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보다 '아동의 사회성'에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경우는 아동중기(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의 경우가 청소년 초기(중학교 3학년)의 아동보다 '아동의 사회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량을 살펴볼 때, 청소년 초기(중학교 3학년)의 아동에게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중기(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보다 더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표 6> 아동중기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하위요인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동중기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	회귀상수	R ² (Adj R ²)	ΔR ² (ΔAdj R ²)	F값	D-W계수
자녀와의 대화								
제1모형	B	.217						
	β	.303 ***			.092		16.012 ***	1.873
	공차한계	1.000		2.867	(.086)			
	VIF	1.000						
제2모형	B	.054	.248					
	β	.076	.410 ***		.208	.116	20.667 ***	1.949
	공차한계	.692	.692	2.517	(.198)	(.112)		
	VIF	1.444	1.444					
자녀양육의 일관성								
제1모형	B	-.022						
	β	-.058			.003		.540	1.935
	공차한계	1.000		3.844	(-.003)			
	VIF	1.000						
제2모형	B	-.036	.220					
	β	-.097	.304 ***		.094	.091	8.152 ***	1.837
	공차한계	.984	.984	3.113	(.083)	(.086)		
	VIF	1.017	1.017					
자녀에 대한 책임								
제1모형	B	.262						
	β	.327 ***			.107		18.947 ***	1.950
	공차한계	1.000		2.703	(.101)			
	VIF	1.000						
제2모형	B	.115	.278					
	β	.143	.398 ***		.232	.125	23.658 ***	1.942
	공차한계	.786	.786	2.166	(.222)	(.121)		
	VIF	.687	1.455					

<표 6> 계속

아동중기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	회귀상수	R ² (Adj R ²)	△R ² (△Adj R ²)	F값	D-W계수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제1모형	B	.185						
	β	.246 ***		3.077	.060 (.054)		10.134 ***	1.869
	공차한계	1.000						
VIF	1.000							
제2모형	B	-.021	.311					
	β	-.027	.497 ***	2.720	.233 (.223)	.173 (.169)	23.793 ***	1.954
	공차한계	.698	.698					
VIF	1.432	1.432						
자녀부양								
제1모형	B	.279						
	β	.322 ***		2.674	.103 (.098)		18.222 ***	1.860
	공차한계	1.000						
VIF	1.000							
제2모형	B	.065	.323					
	β	.075	.507 ***	2.200	.300 (.291)	.197 (.193)	33.631 ***	2.019
	공차한계	.764	.764					
VIF	1.309	1.309						
자녀이해								
제1모형	B	.269						
	β	.316 ***		2.734	.100 (.094)		17.547 ***	1.868
	공차한계	1.000						
VIF	1.000							
제2모형	B	.090	.275					
	β	.106	.505 ***	2.355	.311 (.302)	.211 (.208)	35.458 ***	1.994
	공차한계	.827	.827					
VIF	1.209	1.209						
자녀사랑								
제1모형	B	.194						
	β	.257 ***		2.975	.066 (.060)		11.149 ***	1.890
	공차한계	1.000						
VIF	1.000							
제2모형	B	-.042	.294					
	β	-.056	.554 ***	2.824	.275 (.266)	.209 (.206)	29.827 ***	2.045
	공차한계	.681	.681					
VIF	1.468	1.468						
자녀교육								
제1모형	B	.227						
	β	.310 ***		2.928	.096 (.090)		16.818 ***	1.932
	공차한계	1.000						
VIF	1.000							
제2모형	B	.038	.341					
	β	.052	.610 ***	2.376	.402 (.394)	.306 (.304)	52.700 ***	2.084
	공차한계	.821	.821					
VIF	1.218	1.218						

***p<.001

<표 7> 청소년 초기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하위요인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 초기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	회귀상수	R ² (Adj R ²)	△R ² (△Adj R ²)	F값	D-W계수
자녀와의 대화								
제1모형	B	.184						
	β	.332 ***		2.913	.110 (.105)		21.919***	1.997
	공차한계 VIF	1.000 1.000						
제2모형	B	.133	.059					
	β	.240*	.134	2.886	.120 (.110)	.010 (.005)	11.956***	1.988
	공차한계 VIF	.528 1.893	.528 1.893					
자녀양육의 일관성								
제1모형	B	.190						
	β	.272 ***		2.955	.074 (.069)		14.126***	2.026
	공차한계 VIF	1.000 1.000						
제2모형	B	.100	.203					
	β	.143 ***	.301 ***	2.578	.148 (.138)	.074 (.069)	15.282***	2.002
	공차한계 VIF	.817 .817	1.223 1.223					
자녀에 대한 책임								
제1모형	B	.190						
	β	.339 ***		2.920	.115 (.110)		23.013***	2.024
	공차한계 VIF	1.000 1.000						
제2모형	B	.099	.151					
	β	.176 ***	.272 ***	2.681	.163 (.153)	.048 (.043)	17.089***	2.030
	공차한계 VIF	.642 1.557	.642 1.557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제1모형	B	.122						
	β	.270 ***		3.181	.073 (.068)		13.950***	2.039
	공차한계 VIF	1.000 1.000						
제2모형	B	.021	.236					
	β	.047	.423 ***	2.728	.202 (.193)	.129 (.125)	22.310***	2.081
	공차한계 VIF	.721 1.386	.721 1.386					
자녀부양								
제1모형	B	.189						
	β	.310 ***		2.923	.096 (.091)		18.778***	2.058
	공차한계 VIF	1.000 1.000						
제2모형	B	.059	.186					
	β	.096	.360 ***	2.716	.180 (.171)	.084 (.080)	19.344***	2.100
	공차한계 VIF	.650 1.539	.650 1.539					

<표 7> 계속

청소년 초기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	회귀상수	R ² (Adj R ²)	△R ² (△Adj R ²)	F값	D-W계수
자녀이해								
제1모형	B	.182		2.975	.088 (.083)		17.098***	2.036
	β	.297 ***						
	공차한계	1.000						
	VIF	1.000						
제2모형	B	.059	.156	2.884	.155 (.145)	.067 (.062)	16.144***	2.013
	β	.097	.327 ***					
	공차한계	.626	.626					
	VIF	1.598	1.598					
자녀사랑								
제1모형	B	.166		3.027	.098 (.092)		19.138***	2.031
	β	.312 ***						
	공차한계	1.000						
	VIF	1.000						
제2모형	B	.075	.113	2.999	.137 (.127)	.039 (.035)	13.970***	2.022
	β	.141	.262 ***					
	공차한계	.572	.572					
	VIF	1.747	1.747					
자녀교육								
제1모형	B	.190		2.989	.105 (.100)		20.860***	2.021
	β	.352 ***						
	공차한계	1.000						
	VIF	1.000						
제2모형	B	.060	.174	2.855	.187 (.178)	.082 (.078)	20.207***	1.933
	β	.102	.362 ***					
	공차한계	.622	.622					
	VIF	1.609	1.609					

* p<.05, *** p<.001

2)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의 하위요인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의 각 하위요인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중기(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결과와 청소년 초기(중학교 3학년) 아동의 결과는 <표 6>과 <표 7>에서 보는바와 같다.

먼저 아동중기(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경우,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양육의 일관성'요인을 제외한 '자녀와의 대화', '자녀에 대한 책임',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자녀부양', '자녀이해', '자녀사랑', '자녀교육'의 7가지 하위요인에서 '연구문제 2'의 주된 결과와 같이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의 변화량은 11.6%~30.6%로 나타났다. 즉, '제 1모형'에서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가, '제 2모형'에서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과 함께

투입하였을 때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력만 나타났다<표 6>. 한편, '아동중기 아동의 자녀양육의 일관성'요인에서는 '제 1모형'에서 '아버지가 인식한 자녀양육의 일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제 2모형'에서 '아동이 인식한 자녀양육의 일관성'과 함께 넣었을 때, 9.4%의 영향력만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초기(중학교 3학년) 아동의 경우, '연구문제 2'의 결과와 아동중기(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결과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표 7>.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자녀부양', '자녀이해', '자녀사랑', '자녀교육'의 5개의 요인은 '연구문제 2'의 결과와 아동중기(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결과와 동일한 연구결과로 나타났고, 그 영향력의 변화량은 8.9%~12.9%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중기(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과 비교했을 때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증가폭은 더 적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의 일관성'과 '자녀에 대한 책임'의 경우에는 '제 1모형'에서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각각 7.4%와 11.5%로 '아동의 사회성'을 설명하는 요인이었고, '제 2모형'에서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과 함께 투입하였을 때,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력이 소멸되지 않고 함께 영향력을 미쳐서 각각 14.8%와 16.3%의 영향을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대화'의 경우에는 '제 1모형'에서 '아버지가 인식한 자녀와의 대화'만 투입한 결과, 11.0%의 설명력을 가졌는데, '제 2모형'에서 '아동이 인식한 자녀와의 대화'와 함께 투입한 결과 12.0%로 설명력이 다소 올라가긴 했으나 '아동이 인식한 자녀와의 대화'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가 인식한 자녀와의 대화'만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중기(초등학교 6학년) 아동과 청소년 초기(중학교 3학년) 아동의 결과는 '자녀와의 대화'요인과 '자녀양육의 일관성', '자녀에 대한 책임'요인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였다. 먼저, '자녀와의 대화'요인은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보다는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큰 요인으로 '아동이 인식하는 아버지 역할수행'보다는 실제로 행해지는 아버지 역할수행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의 일관성'과 '자녀에 대한 책임'의 요소에서는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함께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력은 증가하며, 특히 청소년 초기에는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보다는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중기(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과 청소년 초기(중학교 3학년) 아동 및 그들의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아버지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성'에 대해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며 그에 대한 논의를 함께 제시한다.

첫째, '아동의 사회성'은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고저(高低)집단에 따라 다르다. '아동의 사회성'은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보다는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오히려 개인에게 의미있게 지각된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Bronfenbrenner(1986)의 견해에 비춰볼 때, 아동 스스로가 인식하는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적인 연구의 설계를 '제 1모형'과 '제 2모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 1모형'에서는 '아버지가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과 각각의 8가지 하위변인들을 투입하여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 2모형'에서는 '아버지가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과 '아동이 인식한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 그리고 각각의 8가지 하위 변인들을 투입하여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실제적인 설명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 1모형'에서는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을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그러나 '제 2모형'에서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을 함께 투입하여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그 경향은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문제 1에서 아동과 아버지의 인식차이의 고저(高低)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차이의 검증과 동일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다. 즉, '아동의 사회성'에 '아버지 역할수행'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을 설명하는데 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아동의 입장에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위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아동의 사회성'에 아버지가 실제 행하는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보다는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더 의미 있게 작용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발달의 단계와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아동의 연령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사회성은 아동의 발달 단계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달랐다. '아동의 사회성'에 '아버지 역할수행'은 의미 있는 요소임에는 분명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청소년 초기 아동의 경우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더 많은 영향력을 보였다. 특히 아버지 역할수행의 하위요인 중 '자녀와의 대화'요인은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청소년 초기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이는 실제 아버지가 행하는 자녀와의 대화가 긍정적이고 많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발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녀양육의 일관성'과 '자녀에 대한 책임'요소도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과 더불어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청소년 초기 아동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밝혀졌다. 이 결과를 통해서 '자녀양육의 일관성'과 '자녀에 대한 책임'의 영역에서는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모두 영향력 있는 요소이지만,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청소년 초기 아동의 사회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중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청소년 초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이 다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중기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것들에 대한 자기인식이 자기를 평가하고 바라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청소년 초기에는 자신들에게 실제 제공되는 요소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중기에는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보다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청소년 초기에는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더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초기에는 자신이 인식하는 요소보다는 객관적인 평가요소가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특성상 아버지의 역할수행보다는 또래집단의 영향과 평가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아버지 역할수행'은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영향력은 특히 아동이 어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요사이 젊은 아버지들이 '달콤한 아빠(sugar daddy)'를 표방하는 것(김성일, 2006)은 아동이 어린 나이의 발달단계에 있으므로 적절한 역할수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아동의 발달단계가 달라짐에 따라 변화가 있기에 청소년 초기에 아동이 접어들면서부터 아버지 역할수행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 초기의 아버지는 실제적으로 아동에게 제공해주는 아버지 역할수행에 아동의 사회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아동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자녀양육의 일관성을 갖고 행동하며, 아동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어주는 것이 청소년 초기 아동을 둔 아버지의 적절한 역할수행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아버지의 적절한 역할수행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역할수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

이기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아동과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성을 살펴보았지만 가족관계의 역동적인 측면에서 어머니의 관점을 포함하여 아버지 역할수행을 함께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과 사회성을 살펴보았지만,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으로 한정지어 연구되었기 때문에 각 아동의 발달단계마다의 특성을 밝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과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역할수행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의 대상이 편향되어 이루어진 결과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각 단계에 맞는 아버지 역할수행의 차별점을 제시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접수 일 : 2008년 03월 15일
- 심사 일 : 2008년 03월 25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5월 25일

【참 고 문 헌】

김경희(2000).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환(1992). 건전한 사회성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를 위한 분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성일(2006). 아버지의 수용과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 연구동향 분석. *교육문제연구*, 24, 165-191.

김숙경(1989). 외동이 형제아의 모-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숙(1996). 두자녀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심리적 경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선(2005). 첫 아버지됨의 체험. *아동학회지*, 26(5), 73-87.

박미자(200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혜(1995).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귀자(1999).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요현(2006).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성.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학가정학회지*, 34(4), 87-101.

여진경·전영주(2007).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와 아들의 의사소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15-27.

- 윤서영(1998).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서영·정옥분(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2), 101-123.
- 이동희(199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최태진(2007).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20(1), 23-41.
- 임귀성(1999).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성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미(1999). 자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1987). 발달주기에 따른 아버지 역할.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107-115.
- 정은주(1990).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모,아동의 지각.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화(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자·손은주(1998).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가톨릭 교육연구*, 8, 39-62.
- 차은영(1987).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아버지와 자녀간의 활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선아(1996).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아버지-어머니-유아기 자녀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숙(2006).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 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89-212.
- 함인희(1997). 현대사회 아버지상의 재발견. *가족과 문화*, 9(2), 1-24.
- 황정해(2003).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남성의 부성경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mbrose, R. P. (1988) All-Day Kindergarten: One Model That Works.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ternational*. Salt Lake City, UT, April 21-24.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Vol. 7, pp. 3-46).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ronfenbrenner, U.(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23-742.
- Cabrera, N. J., Tamis-LeMonda, C. S., Bradley, R. H., Hofferth, S., & Lamb, M. E.(2000). Fatherho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1), 127-136.
- Canfield, K. R. (1995). Effective fathering practices and fathering satisfaction related to father's life cour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Dudson, F. (1975). *How to father*. N.Y.: Penguin Books Co., Inc.
- Eggerichs, E. E., Jr. (1992). A descriptive analysis of strong evangelical fa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Eric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in psychology. New York: Norton Co.
- Harris, K. M. & Morgan, S. P. (1991). Fathers, sons, daughters : Differential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531-544.
- Huntsinger, C. S., Jose, P. E. & Larson, S. L. (1998). Do parent practices to encourage academic competence influence the social adjustment of young European American and Chinese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747-756.
- Lamb, M. E., Pleck, J. H. & Levin, J. L. (1985).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 The effects of increased parental involvement. In B. B. Lahey & A. E. Kazdin(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Vol. 8, pp. 229-266). N.Y.: Plenum.
- Langlois, J. H & Downs, A. C. (1980). Mothers fathers, and peers as socialization agents of sex-typed play behavior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4), 1237-1247.
- LeMaster, E. E. (1974). *Parents in Modern America*, (ed.). Homewood, 111 : Dorsey.
- Levy-Shiff, R. & Israelashvili, R. (1988). Antecedents of fathering : Some further expl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434-440.
- Luster, T. & Okagaki, L. (1993). 박성연·도현심·정승원 역(1996). *부모-자녀관계 : 생태학적 접근*. 서울 : 학지사.

Marsiglio. W., Amato. P., Randal. D. D., & Lamb. M. E.(2000). Scholarship on fatherhood in the 1990s and beyon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November), 1173-1191.